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5:1-8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고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과

둘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을 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잡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세가지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첫번째인 죄에 대한 고백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갈릴리에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의에 빠져 찢어진 그물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해변으로 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를 떠

나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을까요?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쌓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잡은 고기로 겨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깊은 절망 속에서 그 물을 낚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고, 마침 자신의 배에 올라타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점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미 그의 내면에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속에 있던 베드로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선불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마음에 부어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 해결방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해결방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을 당시,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시편은 언제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오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베드로 그 자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도 그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 비어 있는 그물도 그대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눈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주님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줄곧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다가 오늘 말씀을 계기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기적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번째 계단과도 같은 이 고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8 절) 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2.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오늘 본문 중 1-6 절을 큰소리로 다시 읽어 봅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베드로는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고, 그 분 앞에 선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솔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